



내 중심에다가 모든 걸 둘 아나게 놓으세요

(지난 호에 이어서)

우리가 지금 (가슴을 짚으시며) 이 마음공부하는 것도 수억겁 생을 거쳐 오면서 인연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만난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라면 국민들의 말을 씻어 줘야 하는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위에 앉아서 좋은 거를 받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말을 씻어 줘야 한다는 얘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정돈하고 그렇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등근 어버이라면 이 세상에서 누가 뭐라고 할 겁니까?

그것뿐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마음공부를 해서 차원이 높아지면 누가 알아주느냐 이러겠지만 벌써 바깥으로 빛이 비쳐 나옵니다. 그러니 빛이 비쳐 나오는 것은 일체 보살들이 다 응호하고 있죠. 일체 부처님의 마음이 직결돼 있죠. 일체 만물만생들이 다 응호하고 있던 말입니다. 그러니 어디다 세워 놓은들 살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얘깁니다.

지금 못 먹고 굶주리고 이런다고 해서 나의 자부처를 탁탁 털어내 버리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내가 과거에 그렇게 남을 못살게 해서 지금 못사는 거니까 그 뜻을 아시고, '그렇게 못살게 만들어 놓은 장본인이 바로 나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못살게 된 원인이 거기에 있으니까, 내 탓이니까 수행해서 이걸 다 없애라!' 하고선 모든 걸 거기다 놓기만 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건 거기다 놓기만 하면 없어지는 겁니다. 조금도 애누리가 없거나 조금도 허탈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말을 하죠. 거기다 놓고 진짜로 믿는다면은 거기서 보다가도 돼 줄 수 있고 해결사도 돼 줄 수 있다고요. 해결사가 돼 준다고 그래서 잔뜩 잘못해 놓은 거를 금세 없애 주는 것이 해결사가 아닙니다. 그런 거를 다 녹이고 끈기 있게 나갈 수 있는 길을 인도하는 그런 위치에서 얘깁니다. 내가 대중대중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내가 한 게 없이 부처님께서 하신 거니까. 잘못된 거는 중생이 한 거고, 잘한 거는 자기 부처가 한 거니까. 허허하...

우리가 살면서 더불어 함께 도반으로서 모든 것을 이렇게 배우고 나간다면 요다음 생에 어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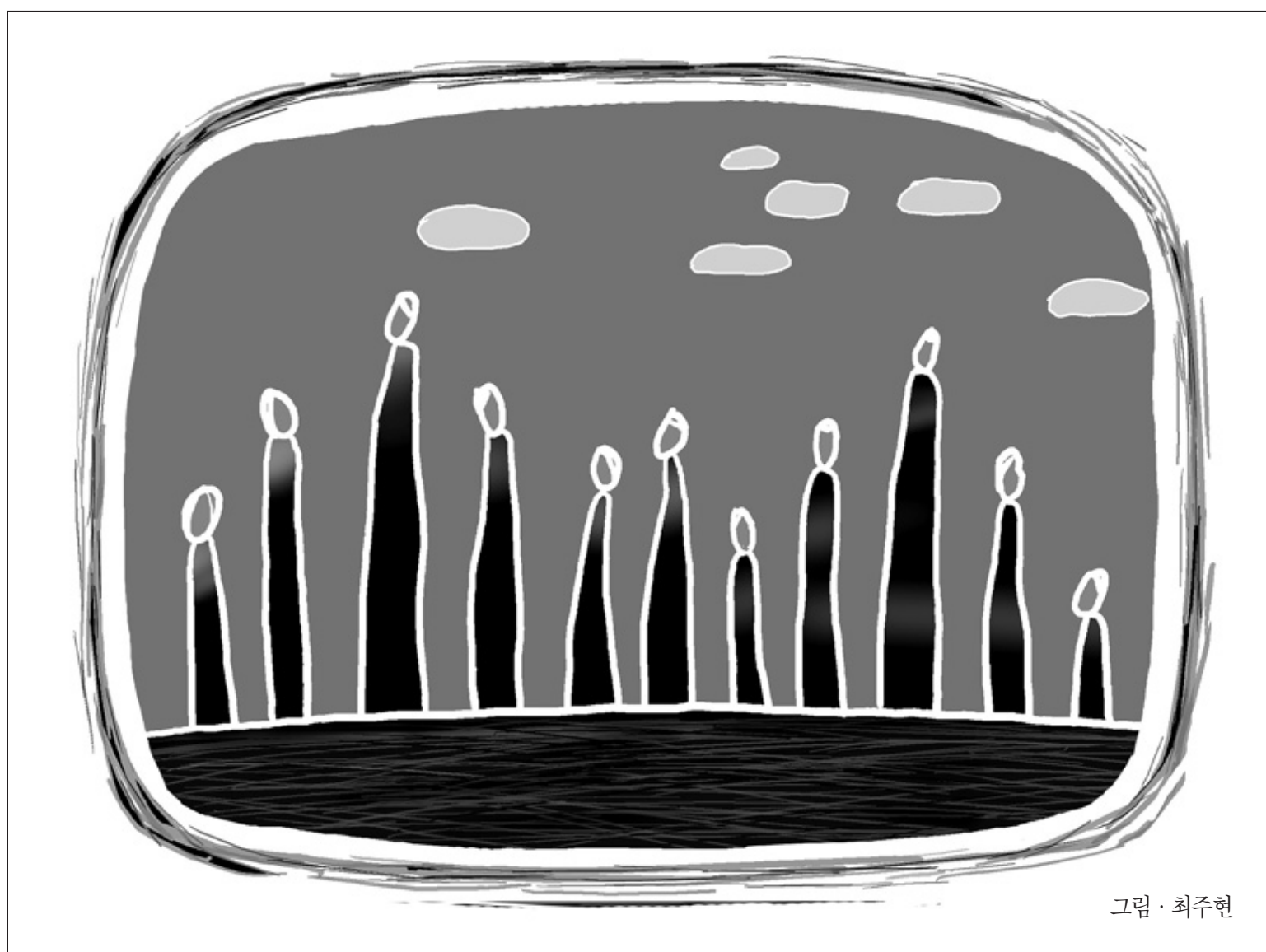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한 차원에서 나오셔도 지금 여러분이 낳아 놓으신 그 자식들도 염주알 꿰지듯 따라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잘못해도 같이 따라 들어가고 잘못도 같이 따라 들어갑니다. 아버지가 잘못하니까 아들이 잘못되듯이, 지금도 잘 보시죠? 허허하... 또 아버지가 잘하니까 자식도 잘하듯이, 이게 아주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생이 따로 있고 현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얼마 안 가서 내생이 되고 현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요 거리가 멀지 않죠. 그러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을 조금도 변치 않게 그 주인공에다 모든 걸 몰아서 한도량에 한마음으로 넣고, 제불과 한 마음이 돼서 우리가 결산을 본다면 크게 이룰

겁니다. 아아, 허공에 꽃이 피어서 그냥 비 내리듯 말입니다. 그럼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자(남): 예, 감사합니다. 심종회 회원입니다. 우선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우스갯소리를 하나 하겠습니까. 얼마 전에 크게 히트한 노래가 있습니다. '그대 앞에서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하는 노래인데, 저도 큰스님 앞에만 서면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큰스님: 그것도 마음이에요. 작아지는 게 뭐 있고 커지는 게 뭐 있습니까? 마음은 제가 없어서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는 자유를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커진다고 생각도 말고 작아진다고 생각도 말고 그냥 땃땃하게, 그냥 여여하게 자유스

럽게 생각하세요.

질문자(남): 감사합니다.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한 가지는, 이 이야기가 적절한 비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육조 혜능 대사께서 '응무소주(應無所住) 이생기심(而生其心), 응당 머무름이 없이 마음을 내라.' 하는 구절에서 크게 깨치셨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그것까지 이해를 할 수 있을는지, 아니면 그런 그릇이 되지 못해서 그것을 이해를 못할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체험담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어느 날 차를 운전하고 어디를 가는 도중에 운전석 앞에 있는 거울을 보게 되었는데, 거울에 비치는 제 모습이 대단히 시무룩하고 무표정하

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주인공에게 맡겨 두는 상태를, 그러니까 아무 마음도 안 내고 그냥 바라본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무 시무룩해서 '그러지 말고 한번 생기 있게 해봐.' 그런 생각을 내니까 얼굴이 조금 밝아지고 눈동자가 초롱초롱해졌습니다. 그래서 '한번 웃어 보라.' 했더니 그냥 또 웃는 모습이 나타나더군요. 그런데 그것이 말하자면 '응무소주 이생기심' 과 비유할 수 있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큰스님: 맞아요, 맞아요.

질문자(남):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보다 더 큰 어떤 것이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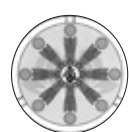
큰스님: 큰 거든 작은 거든 상관이 없어요. 육조 스님이 또, '어찌 내 불성이 있는 줄 알았으리까. 어찌 내 불성이 있어서 내 불성이 그냥 여여한 줄 알았으리까.' 하셨죠. 이 자체가 바로 당신이 '웃어 보라.' 그러니까 웃고, '시무룩한 거 좀 견하게 해라.' 그러니까 그렇게 견하게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견하게 하란 놈도 그놈이요, 또 견혀서 웃은 놈도 그놈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자유스럽습니까. 그 자유스런 곳에서 그렇게 자유스럽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슷한 게 아니라 아주 같아요.

질문자(남): 예, 감사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무릎을 꿇고 여쭙어야 되겠습니다.

큰스님: 어이, 괜찮습니다. 뭐 꿇으나 드러누우나 뭐... 하하하.

질문자(남): 저는 이 한마음선원에 온 지가 여러 해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어느 책을 읽어보고 '스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하시는구나.' 생각했기 때문에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번 설법을 듣는 동안에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것도 거기에서 나오니 거기에 맡겨 놓으세요. 그것도 거기서 하도록 하세요. 놔 놓고 바라보세요.'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처음 들을 때에도 이해는 할 수 있었죠. 그런데 한 일 년 정도를 법회 때마다 와서 듣고 나니까 그 느끼는 감이 좀더 다르

24면으로 계속



사단법인 한국생활불교조계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도선

승정원장 벽봉 원로원장 도암

원로 범령 지관 월타 일장 무승 해암 화담 일우

◇ 각원 원장

호법원장 대원
의전원장 원담
교육원장 남산
포교원장 보광
기획원장 일두
총무원장 도선
비구니회장 혜담
문화원장 도명
연수원장 대공
사정원장 묘허

◇ 각시도 총무원 원장

경남진주총무원장 석문
경북중앙총무원장 설정
경북예천총무원장 명허
경남중앙총무원장 청강
경북성주총무원장 홍재
제주중앙총무원장 의공
전남중앙총무원장 원행
충북중앙총무원장 선학
포항중앙총무원장 체법
광주중앙총무원장 아도
강원강릉총무원장 원응
경기중앙총무원장 도문

◇ 총무원 각부장

총무부장 도홍
교육부장 정봉
사회부장 청암
연수부장 지공
포교부장 도명
호법부장 성보

◇ 총무원 각국장

문화국장 보성
포교국장 용정
수행국장 보각
사서국장 성덕
사회국장 원각
사정국장 일연

◇ 총림미래로 봉사단

회장 학산(이종길)
부회장 대도심(어월순)
총무 무생심(예욱자)
감사 진불심(이순임)
법학심(김막두)
약손봉사회 회장 혜명
임원 청연화, 보덕행
가용빈가합창단 임원일동

◇ 지역 각 포교국장

경남포교국장 총효
인천포교국장 무현
서울포교국장 보현
경기포교국장 효성
대구포교국장 법성
포교국장 성운
포교국장 지명
포교국장 혜원

◇ 법사승각원장

경남원장 도혜
충남원장 명보
대전원장 정대
울산원장 법광
포항원장 명성
부산원장 용성
충무국장 원명
경기원장 덕산
대구국장 금강
재무부장 자운
국제국장 지원
경산국장 승정
부산국장 혜성
마산국장 혜명
경기국장 덕산

살아 있으면서 열반의 경지에 들어가야 합니다

☞ 23면에서 계속

고 조금 이해가 깊어지고 그 다음에는 '어쩌면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괜찮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서도 여러 해 가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상당히 실망에 빠졌습니다. 이 주인공 공부라는 것이, 마음공부라는 것이 상당히 좋기도 한데, 제가 부지런하다고 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마하의 스님 설법하는 데는 꼭 빠지지 않고 나왔으니 뭐 영접자리 신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이게 뭐 별로 되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꼭 뭐가 딱히 안된다고 꼬집어서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법회 때마다 질문을 하시는 신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나는 며칠 만에 스님을 보았는데 꿈속에 스님께서 나타나서 이렇게 지도를 해 주었고, 나는 이러한 경험을 해서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을 들어 보면 사람들은 대단히 훌륭하고 마음공부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별로 내세울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는 것 같아서 잘될 수 있도록 꾸준히 하든가 채찍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내려주셨으면 하고 나왔습니다.

크스님 : 어떠한 스님네들이나, 또는 스님이 아니더라도 꿈에 상상해서 좋은 꿈을 꾸었다, 부처님께서 나타나서 금강좌를 주는 꿈도 꿴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글씨를 써 가지고 깨쳤다고 그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뺨 그림자 하나를 놓고 보는 것인데 그게 배가 부르겠습니까, 안 부르겠습니까? 그림자 떡이 배가 부르겠습니까, 안 부르겠습니까 하는 소립니다. 그러면 꿈에 무엇을 했다거나, 또 꿈에 나를 보았는데 내가 거들어 줬다고 했어도 그저 '아유, 감사하구나!' 이라고 그냥 놔둬야지, 그것이 좋아서 그냥 자꾸자꾸 꿈에 애착해서 따라가거나, 꿈의 형상을 보고 따라가거나 이런다면은 아무리 해도 자기가 실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둘 아니게, 자기와 똑같이 둘 아니게 놓으라는 얘기죠. 아무리 좋은 것을 꿈에서 봤다 하더라도 '감사하구나!' 하고 거기다 놓고, 아무리 악한 걸 봤다 하더라도 '악한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나를 테스트 해 보는 거로구나!' 하고 거기다 놓고 이렇게 모든 걸 대처해 나간다면 그렇게 직코스로는 공부가 없는데, 이진 꿈에 그렇게 꿴다고 그러고 따라가고 저리로 따라가다 보면은 나중에

허탈해질 거 아닙니까? 아무리 주인공을 찾아도, 이거 꿈에 보고 뭐 어쩌고 그러는데도 이모양 이 꼴이라고 하면서 말이지. 자기가 실천을 해서 자유자재권을 얻어서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함이 없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만이 그게 바로 자기 완성입니다.

그런데 자기 완성을 하지도 못한 채 꿈을 좇아간다면 꿈에 본 떡을 보고 배부르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망상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볼 때도 '아, 모든 것을 마음속에서 옹호해 주시는구나!' 하고 감사히 생각하고 거기다 놓으면 돼요. 거기에 좇아가지 말고 놔요. 집어 먹어치워라, 이 소리예요. 부처님을 봤어도 즉시 집어 먹어치우고요. 그러니까 내가 '둘 아니다' 이랬죠, 영! 영이 만약에 몇만 개다 할지라도 그것은 둘이 아닌 까닭에 일불(一佛)이라고 했습니다.

가 싹하고 붙어 있듯이 그냥 그대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어 있는 데도 그런 줄 모르니까 같이 통과가 돼야 되겠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허망한 것도 아니니 이걸 허망하게 생각지 마세요. 그저 허망하고 허망치 않고 그런 거를 한 찰나에 싹 그냥, 둘 다 없애 버리세요.


질문자(남) : 예, 감사합니다. 마음공부를...
크스님 : 그리고 외려 그렇게 된 거를 대견스럽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뿌리에서 내 싹을 푸르르게 살도록 과정을 거치게 하나야 얼마나 감사한가.' 한다면 아마 꿈도 좋고 생시도 좋을 겁니다. 허허허...

(사회자를 향하여) 다 됐습니까?

사회자 : 한 분밖에 없습니까.
크스님 : 왜요?
사회자 : 질문자가 없었습니다.

‘초발심시변정각’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처음에 먹었던 마음을 조금도 흐트리지 않고
즐창 나간다면 그대로 각입니다. 각을 이루는 겁니다.
허망한 생각 조금도 마시고 처음에 하려고 칼을 뺐으면
그게 바로 변정각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도와주는 꿈을 꾸었는데 그걸 좋게 생각을 했던 말입니다. 사실 언짢지도 않죠, 또 좋게 생각을 해서 그저 '저 사람은 차원이 차차 높아져서 무의 세계에서도 저렇게 채찍질을 해 주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거기 놔야지, 그걸 좇아가면 안 되죠. 내 중심에다 모든 걸 다 놔라 이 소립니다. 그리고 어떠한 게, 아까 뭐라 그랬죠? 허망하다고 그랬던가, 뭐.

질문자(남) : 예, 공부 좀, 진전되지 않는 것 같아서 실망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크스님 : 이거 봐요. 주인공이 뿌리라면 지금 몸뚱이가 싹과 같은 건데, 싹과 뿌리가 항상 붙어 있는데 무슨 실망입니까, 실망이. 실망할 것도...

질문자(남) : 부와 자가 상봉하는 것이...

크스님 : 상봉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걸 모르니까 그것도 방편으로 쓰는 말이지, 불성과 자기 육은 한데 붙어 있어. 저 나무들의 뿌리

크스님 : 그럼 내가 사월초파일 말을 안 했으면 그냥 질문을 한 분만 하고 말았을 거예요? (대중 웃음)

질문이라는 게 별 게 아니에요. 사람이 살아나 가면서 어떠한 게 닥쳐올 때, 또는 닥치거나 안 닥치거나, 사람 살아가는 도리에서 이것도 저것도 다 놓고 가는 도리가 어떠한 것인가 하고, 그러한 거를 이제 생활 속에서 의문하는 대로 묻는 거죠. 생활이 '교(敎)'니까요. 그냥 불성이 '불(佛)'이라고 하죠. 바로 인간의 생명의 근본이 '불'이예요. 그리고 우리 생활하는 게 '교'고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어느 종교라는 이름이 아니고, 진리라는 이름도 방편이지만 그냥 진리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 스님들이 머리 깎고 승복을 입은 이 방편도 우리 머리 깎은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그런 도리를 진실로 지켜가면서 하기 위해서예요. (장삼을 가리키시며) 겹지도 않고 희지도 않은 옷을 입는다, 아무리 겹데기라도, 그 겹데

기를 입는 반면에 우리 마음이 정숙해져야 된다. (머리를 짚으시며) 이걸 무명초라 했으니 일체 만물이 다 소생이 되고 또 소생이 되고, 깎아도 소생이 되고 또 깎아도 또 소생이 되고 하나씩, 끝이 없는 진리에 관한 건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머리를 깎은 겁니다.

부처님께서 사생자부가 되신 그 뜻을 생각할 때 '하나서부터 열까지 내가 아님이 하나도 없다'고 하시니까 그걸 얼마나... 그러니까 너의 부모가 따로 없다고 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생자부이신 아버지인데 어찌 뺨 무더기에다가 절을 하십니까? 왜 하지 못한 뺨 무더기에다가 절을 하십니까?" 하나 "진짜 사생자부라면, 미생물에서부터 수없이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거듭거듭 바뀌 가면서, 찰나찰나 화해서 이렇게 거듭거듭 바뀌어서 나온 이 자체를 볼 때 어찌 내 부모 네 부모가 따로 따로 있으랴. 내 할머

는데 찰나 후에 이렇게 감옥에까지 가게끔 되지 않습니까?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조그만 거든 큰 거든 다 그렇죠. 원리가 다 그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천 년 전이다 해도 찰나 전이고, 삼천 년 후다 해도 찰나 후예요. 지금 현재에도 그냥 찰나찰나 돌아오고 있고요. 그러니 뭐를 거기서 따지고 뭐를 가져야 한다, 이런다 저런다 할 게 있습니까? 그저 이, 도리천 세계 삼라만상 대우주 중심을, 우리가 중심에서 한마음이 돼서 오로지 자유스럽게 자유권을 얻어서 모두 나 하고 싶은 대로, 즉 말하자면 어디 길을 지나가다가 억울한 사람이 있다면 그걸 억울하지 않게 대처를 해 주고 지나가고... 누가 그랬는지도 알 수는 없었지만, 그러한 까닭에 보살행이 아닙니까? 그게 연기법이기도 하고 말입니다. 무의 공법이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우리가 살아 있으면서 열반의 경지에 들어가서 죽어서 열반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생전에 열반의 경지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러나 열반의 경지에 못 들었다 할지라도 '초발심시변정각(初發心時便正覺)'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처음에 먹었던 마음을 조금도 흐트리지 않고 즐창 그대로 나간다면 그대로 각입니다. 각을 이루는 겁니다. 허망한 생각 조금도 마시고 처음에 하려고 칼을 뺐으면 그게 바로 변정각입니다.

그럼 여러분하고 같이 항상 도반이 되기를 바라면서 조금이라도 흐트러진 마음으로 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 어떠한 생각을 하든 어떠한 생각이 나왔든, 꿈에 어떠한 꿈을 꾸었던 모든 걸 감사하게 그 자리에 놓고 살자, 이 소립니다. 감사하게 놓을 거는 거기에 감사하게 놓고, 잘 안되고 살 수가 없을 때에는 '너만이 살릴 수 있다.' 하고 거기다 놓으세요. 그저 오직 한 구멍, 한자리 거기에다가만 그저 잘되는 것은 감사하게, 못되는 거는 '되게끔 하는 것도 너다.' 하고 감사하게 관하시도록 하고, 우리가 같은 한자리에서 일체 모든 것을 도반으로 여기고 산다면 아주 대단히 좋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아마.

※ 위 법문은 97년 5월 4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불교원효종

佛紀 2555年 辛卯年 Buddha's birthday | '함께하는 나눔 실천하는 수행' |

종 정 벽 승
총무원장 향 운

원로원장 창 해 원로위원 법 성, 해 담, 해 초, 호 성, 불 인

중앙총회회장 원 봉 감사원장 운 오 소청심의위원장 심 상 총무부원장 보 원
고시위원장 태 운 전국비구니회장 명 관

중앙총회수석부위원장 진 혁 중앙총회법규위원장 지 호 중앙총회사무총장 진 산
중앙총회법규위원 상 경, 성 은, 지 상
중앙총회의원 윤 영, 인 담, 옥 운, 도 명, 원 각, 성 원

부산총무원장 법 응 충남대전총무원장 일 루 강원총무원장 명 운 충북총무원장 석 암
경북총무원장 성 죽 전남총무원장 마 명 경남총무원장 도 암 제주총무원장 법 율

교육원장 수 해 포교원장 태 일 복지원장 인 명 문화원장 효 산
전국비구니부회장 자 성 사서실 상 목

사회부장 효 달 복지부장 범 일 규정부장 성 암 문화부장 대 호 교육부장 대 각
감사부장 해 운 재무부장 상 기 사회국장 상 천 복지국장 우 담 규정국장 행 길
문화국장 무 해 교육국장 상 오 감사국장 남 수 포교국장 선 범 재무국장 능 인

중앙신도회 회장 석승곤 중앙신도회 부회장 이응균, 김용태

종 도 일 동

봉 축 사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장 향운

불기2555년 사월초파일! 자비와 지혜의 빛으로 행복과 영원한 자유의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자 참 사바세계의 길로 인도하시는 부처님께서 우리 곁에 오신 날입니다. 온 누리와 사방세계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국민 모두와 불자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하기를 축원 드립니다.

부처님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개고 아당안지' 라는 탄생계를 사자후 하셨습니다. 생명의 본성이 가장 존귀하고 세상의 모든 괴로움을 내가 마땅히 편안케 하리라는 말씀은 바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아니신가 합니다.

타인의 고통이 나의 괴로움과 다르지 않다는 자비의 마음을 실천하고 삶의 순간마다 깨어 있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면 마침내 깨달음은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밝히는 연등 하나하나가 부처님의 위대한 원력과 지혜의 빛으로 바뀌어 모두가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총무원 : 서울 종로구 청진동 11-6 삼선빌딩 601호 전화 02)735-0501
울산사무소 : 울산 울주군 두서면 인보리 565-3 전화 052)262-6857